

‘소중한 재활용 자원’ 입을 일깨워



협회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전시관에서 개최된 「2008 국제환경기술전」(주관 환경보전협회)에 예년과 같이 독립부스로 참가하였다. 가전 완충재, 농수산물 상자, 택배용 상자 등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스티로폼이 사용 후 버려지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소중한 재활용 자원’임을 일깨워 준 이번 전시회에는 학생, 주부, 공무원, 환경기술 관련자, 언론 등 다양한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스티로폼의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갔다. 또한 금년에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 등 개막식 참석 주요 인사들이 협회 전시관을 방문하여 날로 발전해 가는 스티로폼 재활용 현황을 청취하고 재활용 제품 개발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금년에는 SBS-TV ‘생활의 달인’을 통해 ‘스티로폼의 달인’으로 소개된 임명희(이레아트)씨에게 협회 전시 공간의 내부 구성을 의뢰해 예년의 단순함을 벗어나 방문 관람객들에게 참신한 인상을 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달인’은 평소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유치원, 학교, 교회 등의 내부장식을 해왔는데 그녀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스티로폼이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꽃이나 나비 등으로 변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스티로폼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 의견들이 협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